



# 금속민투위

민주노조 재건!  
현장 침탈 분쇄!  
21년 단체교섭 승리!  
년월차 개선 저지!  
고용 안정 쟁취!

■ 발행인 : 의장 김 태 곤 ■ 발행처 : 선전실(29-21호) ■ 게시기간 : 1월 23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 대표 임 병 우

## 정기대대 설명회 통해 대의원 수정안 제출 그러나... 이상수 집행부 원안고수! 2년차 사업계획 조합원 위한 예산 찾아볼 수 없다!

작년 33년차 정기대대에 이어 올해 34차 정기대대 또한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변명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 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현장 제조직 의장단은 지부장 면담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모바일 대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대의원대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또다시 34차 정기대대는 1/19(화) 모바일 방식으로 깜깜이 정기대 대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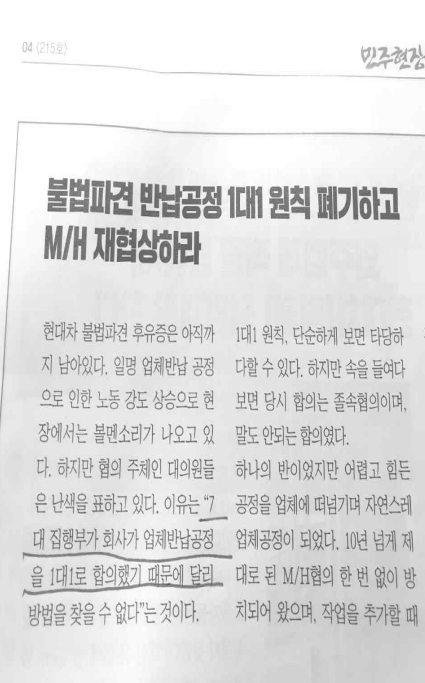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기대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업부별로 진행된 정기대대 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은 사업계획의 모호함과 예산의 중복성 등의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몇 되지 않는 수정안은 각각의 안으로 표결을 해야 하지만 수정안 확정에 대한 위임도 없이 확대운영 위 속에서 수정안이 확정하고 34년차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모바일 정기대대를 통해 15분여 투표시간에 일괄 찬, 반 투표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것은 현장의 조합원 목소리를 전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된 것이며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만행인 것이다.

8대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상수 지부장의 결단으로 주어진 시간과 계획을 철회하고 34년차 사업계획을 실별 또는 안건별 찬, 반 투표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속민투위 15대 대의원 동지들은 8대 집행부의 묻지마 식 사업계획과 전시, 집행부 지적 알리기에 혈안이 된 예산에 대해 조합원의 피 같은 조합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집행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 시대적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금속민투위 흡집내기 위한 민주현장 신문 거짓 기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지난 14일(목) 민주현장 신문 4면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지지부 7대를 집행한 금속민투위를 음해하는 기사를 실었다.

금속민투위는 민주현장의 이번 신문기사가 차기 집행 권력의 탐욕으로 조합원 대중을 기만하고 특별고용 조합원들을 혼란으로 빠트려 노동조합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간주한다.

불파특별고용의 역사는 이경훈 집행부의 8·18 합의, 박유기 집행부의 3·21 합의가 앞서 있었으며 7대 집행부는 이를 근거하여 3·21 합의 연장선에서 12.19 합의로 정규직으로 채용 완료 시점을 1년 앞당기는 합의를 하였다.

민주현장은 사실 왜곡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거짓 선동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